



Oregon주립대학에서 임상로테이션을 마치며

고영환

K O R E A N V E T E R I N A R Y S O C I E T Y O F A M E R I C A

미국 대학에서의 임상 실습이라 하면, 많은 한국 수의대 대학생, 졸업생들에게 하나의 희망사항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인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았고, 과정을 마치면 준비된 수의사로서 당당하게 미국에서 진료를 시작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먼저 이런 단상들에 대한 지금에서의 느낌 또는 결론들은 나중에 얘기해 보기로 하고,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수의대 마지막 4년제 학번인 97학번 고영환이라고 합니다. 2004년 대학원 재학 당시 좋은 기회가 주어져 가졌던 약 한 달간의 짧은 미국 연수 경험은 미래인생 설계도를 완전히 다시 그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6년 후반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와이프와 함께 미국에 건너오게 되었고, 2년 남짓 지난 지금은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임상로테이션을 끝나쳐 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외국 대학(non-accredited schools) 졸업생들은 두 가지 프로그램(ECFVG 또는 PAVE)중 하나를 선택해 미국 수의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미

국 의사 면허 취득에 관심이 있는 최근 졸업생 혹은 재학생들 모두가 주지하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거의 동일한 단계들을 거치면서, 모든 단계를 끝나치면 이수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NAVLE 시험을 합격한 이수자에 한하여 주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두 가지 다른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들자면, PAVE는 마지막 단계인 임상 기술 인증 단계에서 미국 수의과 대학에서의 1년 임상 로테이션 이수를 하나의 옵션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ECFBG는 2006년부터 이러한 옵션을 삭제하고 임상 실기시험 (CPE ; Clinicacal Proficiency Examination)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avsb.org/PAVE/Chart%20PAVEvECFVG_4-07.pdf)

현재 외국인에게 1년간의 임상 로테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은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오레곤 주립대학, 캔자스 주립대학, 퍼듀 대학 등이 있습니다.

입학 전형, 등록금, 로테이션 스케줄 등이 대학마다 크게 다르게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에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오레곤 주립대학은 지원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합니다.

- 영문 성적증명서가 필요하며, 평균점 3.0 이상을 요구하지만, 제 경험상으론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세 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며, 적어도 두 장은 수의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 F-1비자를 제공하며, 그에 필요한 제반 작업 등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수의과 대학에서 입학이 결정되면, 지원자는 international service에 연락을 취하여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수의과 대학 졸업 후 최소 1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다 갖출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 있는 지원자들을 입학 위원회를 통해 심사해 입학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등록금은 현재 3만 4천불 정도이며, 3번에 나누어 지불하게 됩니다.

각 대학별 정확한 등록금 금액은 문의를 하면 알 수 있으며, 다른 대학들의 등록금은 약 4만불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1-20를 받아서 미국대사관을 통해 F-1 비자를 취득하면 드디어 미국에 학

생 신분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로테이션 시작 최소 1주일 전에 대학에 도착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여러 서류 작성과 주거지 결정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년간의 임상 로테이션에 대한 짧은 소개는 제가 다니고 있는 오레곤 주립대학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PAVE에서는 최소 48주간의 로테이션을 요구하며, 로테이션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관심 있는 선택 과목 등을 정하여 1년간의 로테이션 스케줄을 결정합니다. 먼저, 필수 과목에는 소동물 내과/외과, 대동물 내과/외과, 대동물 출장진료, 심장과, 종양과, 진단 방사선과, 진단서비스과(임상병리, 병리), 마취과, 오레곤 humane society 1차 진료, 소동물 응급, 대동물 응급, 학외 연수(preceptorship)등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선택 과목들은 일정 및 선호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데, 이에 포함되는 과목들로는 심화 소동물/대동물 내/외과, 심화 마취과, 통증의학, 말 파행, 낙타류 의학, 응급의학 등이 있습니다.

각 과목들은 중요도에 따라 1주, 2주, 4주간의 기간으로 나뉘어 집니다. 각 과목마다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은 로테이션 시작에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듣게 되고, 그 이전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참고 패킷을 통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내과, 외과 등 환자를 학생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로테이션에 속한다면, 학생이 제일 먼저 보호자와 인사를 하고 병력을 청취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새이 먼저 신체검사를 통해 문제 목록(problem list) 및 상위 몇 가지의 감별 진단 목록을 작성해서 교수, 레지던트, 및 인턴에게 그 환자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체 검사 방법 및 기본적인 임상관련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맥내 카테타 삽입 및 정맥 천자 등과 같은 임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들에 대한 경험도 중요합니다. 각 과별로 사전에 관련 책들을 읽어 보고,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만 뒷받침해 준다면, 대부분의 과들을 어렵지 않게 마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임상 로테이션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이 1년간의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 및 시간 대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취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1년간 많은 배움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저 또한 많은 보호자분들과 환자를 만날 수 있었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능력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수진들과의 토의는 제게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 주는 기회가 되었고, 특히 생리학 및 병리학이 임상에 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희귀 케이스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각 질병들에 대한 가장 최근의 진단 방법 및 치료 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임상에 대한 시야가 한층 넓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정 수료 후 제공되는 1년간의 직업 연수기회(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미국 내에서 의사로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한층 더 자신감 있는 임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